

헐거워진 '앞·뒷문'...민을 건 방망이뿐

KIA, 홈 삼성·원정 한화戰 총력

윤영철·정혜영 이탈 불펜진 하중 독오른 삼성·힘있는 한화戰 호기 '위기를 기회로' 독주 체제 굳힌다



올 시즌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독주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다.

지난주 4승2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후반기 초반 상승세를 탄 KIA는 1위 질주의 가속 페달을 밟을 참이다.

15일 현재 52승35패2무를 기록 중인 KIA는 2위 삼성에 4.5게임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주말 8위 한화와의 대전 3연전이 기다리고 있는 KIA는 그에 앞서 2주 만에 사자를 흠여 다시 만난다.

올 시즌 KIA는 2위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무척이나 강했다. 호랑이 꼬리를 물면 놀라버렸다. LG와 두산이 당했고, 삼성도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호랑이 발톱에 맥없이 쓰러졌다.

KIA는 이번에도 투타의 완벽 조화를 앞세워 1위 자리를 넘보는 삼성을 제압할 방침이다.

사자 사냥 선봉장에는 '대투수' 양현종을 앞세우고, 캡 알레드와 황동하도 차례로 선발



KIA 김도영이 지난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7회말 1타점 역전 2루타를 날린 후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로 나와 삼성 타선 봉쇄에 나선다. 양현종은 올 시즌 삼성과의 경기에서 3차례 등판해 2번의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할 만큼 강하다. 가장 최근에 상대한 지난 4일 경기에서도 5이닝 3실점의 무난한 투구를 펼쳤다.

탄탄한 선발진과 함께 리그 최고의 불방망이도 다시 접화할 참이다. 지난 삼성과의 3연전에서 KIA 타선은 경기 막판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3경기 모두 역전승으로 이끌었다.

3경기에서 때린 안타 수는 무려 44안타(7홈런)로 매 경기 14안타 이상을 난타하며 삼성 마운드를 무너뜨렸다.

이번에도 30(홈런)-30(도루) 기록에 도전 중인 김도영과 최근 타격감이 펄펄 나는 소크라테스의 화력이 기대된다.

1위 자리를 굳히려는 KIA와 승차를 줄이려는 2위 삼성의 맞대결은 이번 주 다시 한번 프로야구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이어 주말에는 한화와 3연전을 갖기 위해 대전행 버스에 오른다.

올 시즌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는 한화는 지난달 김경문 감독 체제로 바뀐 이후에도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KIA가 6승2패로 앞서지만, 상대가 하위팀이라고 해서 한숨을 돌릴 틈이 없다.

KIA는 5선발 중 한명인 윤영철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겨우 안정화된 마운드가 다시 붕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상태다.

여기에 부상으로 빠진 '클로저' 정혜영의 복귀 시점도 불투명한 상태라 불펜진의 과부하를 덜어줘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민을 건 방망이 뿐이다. 마운드의 약점을 겨냥한 공격력으로 상쇄해야 한다.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다시 마운드 운영의 약점을 맞은 KIA가 위기를 딛고, 독주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홍철 기자

윤영철, 척추 피로골절 진단...3주후 재검진

KIA, 마운드 운용 '비상등'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발투수 윤영철이 척추 피로골절 소견을 받았다.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이다.

15일 KIA 구단 측은 "윤영철이 이날 서울 병원 2곳에서 다발 체크를 실시한 결과 척추 피로골절 소견을 받았다"며 "3주 후 재검진 예정이며, 복귀 시점은 재검진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철은 지난 13일 열린 SSG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 무실점 호투를 펼치다 허리 통증을 느껴 3회를 앞두고 조기 강판했다. 그리고 당일 자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부상 부위를 체크한 결과 요추 염증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5일 다발체크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검진 결과를 받으며, 복귀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KIA 마운드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시즌 16경기에 등판해 7승 4패, 평균자책점 4.30을 기록한 윤영철은 KIA 마운드의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아왔다.



윤영철 (KIA 타이거즈 제공)

KIA는 크로우와 이의리가 전반기에 빠진 데 이어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윤영철마저 자리를 비우면서 3명의 주전투수를 잃게 됐다.

그 동안 캡 알레드와 황동하가 마운드의 구멍을 나름 최소화했지만, 윤영철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KIA는 14일 윤영철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그 자리에 김승현을 올렸 다. /주홍철 기자

'무적함대'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유로 최초 4회 우승



15일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제압하고 12년 만에 정상에 오른 스페인 선수단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스페인은 1964, 2008, 2012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유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 대회 전까지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3회로 최다 우승 공동 1위였으나 스페인이 이날 승리로 사상 첫 4회 우승팀이 됐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스페인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며 우승을 이끈 로드리에게 돌아갔다. 경기 전날인 13일 17번째 생일을 맞이한 '신성' 라민 아말은 베스트 영플레이어로 선정됐다. /AP=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3라운드 경기를 마친 유해란 /AFP=연합뉴스

유해란 '톱5'

메이저 에비앙 챔피언십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에서 '톱5'에 진입했다.

유해란은 1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하나와 버디 6개,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가 된 유해란은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인 후루에 아야카(일본·19언더파 265타)와는 6타 차였다.

지난해 10월 웰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받은 유해란은 이번 시즌 6번째 톱10을 기록했다.

특히 그는 올해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5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9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내며 메이저 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 /연합뉴스

BTS 진, 수천 명 '아미' 환호 속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그림 방탄소년단(BTS)의 맴형 진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파리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

14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중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앞에는 그림 방탄소년단(BTS)의 맴형 진이 2024 파리올림픽 성화를 봉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팬들로 북적였다.

진이 오후 8시20분 성화 봉송을 하기까지 2시간 가까이 남았으나 이미 현장엔 수천 명의 팬이 바리케이드 앞에서 들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와 석진(진의 본명) 사랑해', '달려라 석진', '파이팅 석진' 등 한글로 손수 쓴 손팻말을 비롯해 크고 작

은 태극기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진은 오후 8시께 루브르 박물관 내 마련된 성화 봉송 센터에서 나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팬들은 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김석진'을 연호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진은 수줍은 듯 웃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인근 리볼리 가로 이동한 진은 그곳에서 성화를 넘겨받은 뒤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 앞까지 다시 행진했다. 진

이 성화 봉송을 한 거리는 약 200m다. 일부 팬은 진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달리기'까지 했다.

다행히 경찰이 현장 통제를 철저히 해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진은 성화 봉송이 끝난 뒤 소속사 하이브를 통해 영상 메시지를 냈다.

그는 "오늘 성화 봉송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성화 봉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아미 여러분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가운데)이 15일 경기도 이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金·金·金·金·金' 정조준

가자! 파리로...파리 패럴림픽 '팀코리아' 미디어데이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15일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출전을 다짐했다.

정진완 회장은 "파리 패럴림픽에선 도쿄 패럴림픽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약 17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15일 현재 16개 종목 81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정했고, 추후 추가 획득 가능성이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월계어 테니스 종목에서 추가로 출전권을

획득하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20위권 진입으로 잡았다.

보치아 BC3 페어 강선희·정호원, 탁구 MS1 주영대, WS2 서수연, 사격 SH1(P4) 권총 조정우, SH1(R1) 소총 박진호는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배드민턴 남자복식(WH1&WH2) 최정만·김정준, 남자단식(WH2) 유수영, 탁구 WS3(단식) 윤지유, 태권도(K-44) 80kg급 주정훈, 사격 SH1(P3) 권총 김정남, SH1(R7) 소총 박진호, S H2(R4) 소총 서현태, SH2(R5) 소총 이철재도 기대받는다. /연합뉴스